

男子 中・高等學生의 衣服行動과 知覺向性과의 相關研究

—衣服의 同調性을 中心으로—

鄭 美 實・姜 蕙 遠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ehavior and Perceptual Orientation of Korean High School Boys

Mi Sil Chung and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1983.9.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orientation and four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Perceptual orientation was measured with Choi's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and clothing satisfaction was assessed with Lim and Lee questionnaire. Clothing importance was measured with some items of Kirby's Clothing Attitudes and additional items prepared for this study. Clothing comfort was measured with some items of Creekmore Scales of Eight Clothing Variables and additional items prepared for this study. Clothing conformity was measured by some items of Selker's The Clothing Conformity Inventory and Carpenter's Clothing Opinion Scale and the Kim questionnaire, along with additional items for this study. Altogether 43 items were used.

The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80 second year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boys in Seoul.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were:

- 1) Perceptual orient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satisfaction.
- 2) Perceptual orienta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clothing conformity.
- 3) Scores of senior high school boys on self-perception and total percep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se of junior high school boys.
- 4) Clothing satisfaction, clothing conformity and clothing importanc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grade level. That is, junior high school boys had a higher clothing satisfaction and senior high school boys had a higher clothing conformity and clothing importance score.

I. 緒 論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衣服은 개인의

용모뿐만 아니라 가치관, 성격등을 반영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印象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의복의 중요성이나 태도는 個人 및 發達段階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이 속하는 青年期는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男子의 경우 活動을 많이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남자 중·고등학교학생들의 衣服의 重要性和 安樂感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知覺向性은 인간이 자신, 타인 및 사물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고 개인들의 지극히 主觀的인 經驗이다. 따라서 개인의 知覺形態는 衣服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지각향성이 肯定的이나 否定的이나 하는 것은 衣服의 滿足度 및 同調性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urlock¹¹⁾은 靑少年들은 동료집단과 비슷하게 보일 때 소속감을 느끼며 自信感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청년기에는 同調性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른 의복의 동조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의복의 동조성을 일곱개의 側面으로 나누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男子中·高等學生을 대상으로 한 의복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의복의 어느 측면이 중요한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目的은 ①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인 衣服行動 및 校服自律化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②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知覺向性和 衣服의 滿足度 및 同調性과의 相關성을 규명하며, ③ 衣服行動 變因間的 相關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II. 文 獻 調 査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몇 측면에서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靑年期: 청년전기와 후기를 구별하는 나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청년 前期는 우리나라 중학생이, 後期는 고등학생이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청년전기는 후기에 비하여 신체적, 감정적인 변화가 심하다. 신체적 측면에서 청년기에는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하는 등의 외형적 발달과 아울러 운동기능, 생식기능도 발달한다. 나병술¹²⁾은 운동기능의 발달은 집단내에서 개인의 自信을 키워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며, 性格形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서적 측면에서 Baugher 및 Martin¹³⁾은 “청년기는 과도기이므로 인정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의 압력, 부모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등으로 압박감(stress)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라고 하였다. 청년 前期는 제 2의 반항기이고, 不安動搖期이며, 後期는 自我意識이 발달하고, 異性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청년기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는 社會的 適應에 관한 문제

로서 이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들이다. Craig¹⁴⁾에 의하면 청년기에는 새로운 사회의 기대와 역할에 적응해야 되므로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이에 따라 同調性도 높아진다. Latzke 및 Hostetter¹⁵⁾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옷과 비슷하게 입음으로써 社會的 安定感을 느낄 수 있고, 의복을 武器化하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知覺向性: 최정훈¹⁶⁾은 “지각향성이란 인간이 自信, 他人 및 事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內容의 傾向을 말한다”고 하였다. 向性이란 本性 및 本據地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 가운데 주로 肯定的으로 느끼느냐 否定的으로 느끼느냐하는 경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Ryan¹⁷⁾은 自我概念이란 자기 자신의 특성, 능력, 결점 및 외모에 대한 개인의 知覺이며, 자기 자신을 한 개인으로 識別함으로써 인식되는 특성의 전체조직체라고 하였다.

衣服의 滿足度: Anspach¹⁸⁾은 사람마다 옷에 대한 만족은 각각 다르다고 하였고, 衣服에 滿足하는 형태를 유행을 選好하는 형, 實用的인 옷에 만족하는 형, 자기만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형의 3가지로 나누었다. Ryan¹⁹⁾은 사람들은 싼 옷보다 비싼 옷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의복의 만족도는 소비자동기(consumer motivation)의 측면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衣服의 同調性: 동조행위는 個人 內部的 조건(personality)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外界의 조건(상황적 요인)간의 相互作用의 결과이다²⁰⁾.

Taylor 및 Compton¹⁰⁾이 인용한 Miller와 Dollard는 동조성은 타인과 다르게 행동할 때 나타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Horn¹¹⁾은 의복의 동조성이란 特定集團의 기준에 맞추어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영인¹²⁾의 연구에 의하면 동조성이 높은 女子中·高等學校 學生들은 의복의 個性을 중요시하였고, Hambleton, Roach 및 Ehle¹³⁾의 연구에서 의복의 동조성은 男子高等學生이 여자고등학생보다 높았다.

衣服의 重要性: Flugel¹⁴⁾에 의하면 옷은 인간의 자기도취(narcissism)의 결과, 즉 자신의 외모에 대한 즐거움과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욕망의 결과로 발달되어 왔다. Kefgen¹⁵⁾이 인용한 Conner의 연구에서 의복은 첫인상 형성에 중요한 役割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mphrey, Klaasen 및 Creekmore¹⁶⁾은 靑少年들에 있어서 의복이란 자기존중감 또는 불안전감등을 反映할 수 있다고 하였다.

衣服의 安樂感: Latzke 및 Hostetter¹⁵⁾에 의하면 의

복의 안락감은 의복을 입는 二次的 동기중의 하나이지만,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의복의 요소중의 하나이며, 과거 50년동안 남자들의 의복은 모양과 색깔이 다양해지고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발달하여 왔다. 이경손¹⁷⁾의 연구에서 成人男子는 사업상 중요한 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安樂感이 의복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

Ⅲ. 假 說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과 이에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零假說을 설정하였다.

- 1) 학생들의 知覺向性은 의복의 滿足度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 2) 학생들의 知覺向性은 의복의 同調性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 3) 학교집단(중학교—고등학교)의 차이는 학생들의 知覺向性 및 衣服行動(의복의 만족도, 동조성, 안락감, 중요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Ⅳ. 方法 및 節次

1. 측정도구

1) 知覺向性檢査

Usher의 지각향성의 측정기준을 토대로 중·고등학교생용으로 최정훈이 작성한 標準化된 지각향성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타인지각 및 자아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타인지각 20문항, 자아지각 20문항의 총 4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향성이 肯定的인 사람이다.

2) 衣服行動檢査

의복의 滿足度, 同調性, 重要性 및 安樂感의 4측면을 측정하였으며, 전체 43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측면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① 衣服의 滿足度 : 선행연구들^{17), 18)}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을 선택하였고, 그 내용은 의복의 용도, 가지수, 비싼 옷, 입는 방법, 색의 만족등에 관한 것으로 총 8문항이다.

② 衣服의 重要性 :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¹⁹⁾에서 Kirby의 Clothing Attitudes中 3문항을 선택하였고, 5문항은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복이 첫 인상에 미치는 영향, 의복에 신경을 쓰는 정도, 친구를 사귄 때나 사람을 평가

할 때 의복이 주는 영향등에 대한 것으로 총 8문항이다.

③ 衣服의 安樂感 : Creekmore의 Scales of Eight Clothing Variables에서 4문항을 번역하였고, 4문항은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T-셔츠나 스포츠웨어를 입는 정도, 옷이 끼는 정도, 옷의 촉감, 불편한 옷에 신경을 쓰는 정도등에 대한 것으로 총 8문항이다.

④ 衣服의 同調性 : 의복의 동조성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의복의 기준 7문항, 가격 및 구매 3문항, 예의 2문항, 유행 2문항, 사회적관계 2문항, 모양 및 색 2문항, 날씨 1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복의 동조성문항은 김영인¹²⁾에서 3문항을 선택하였고,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¹⁹⁾에서 Selker의 The Clothing Conformity Inventory中 3문항, Carpenter의 Clothing Opinion Scale中 2문항을 번역하였으며, 11문항은 본 연구에서 작성하였다.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2학년 男子 中·高等學校 480명이며, 자료수집은 설문지에 의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1982년 6월에 서울 강남구의 S중학교 및 마포구의 S중학교에 280부, 성북구의 K고등학교 및 중구의 J고등학교에 240부가 수업시간 중에 배부되었다. 응답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고, 회수된 520부의 설문지중에서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480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또한 의복행동변인에 대한 각 문항과 全體문항합계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계수가 낮은 의복의 만족도, 안락감, 중요성의 각 1문항과 동조성의 6문항(기준 4문항, 예의 2문항)은 통계분석에서 除外되었다.

3. 연구의 한계점

표집대상이 서울에만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경제수준이 중류층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이다.

Ⅴ. 結果 및 論議

1. 검사변인의 분포경향

타인지각과 자아지각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20~100점이나, 실제의 점수범위는 타인지각은 49~91점, 자

자아지각은 47~98점이었으며, 70~79점 사이에 타인지각은 42%, 자아지각은 35%가 분포되었다. 타인지각과 자아지각을 합한 총지각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40~200점이나, 실제로는 106~180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140점이상이 62%를 차지하여 학생들은 비교적 肯定的으로 생각하는 편이었다.

의복변인에 있어서 의복의 만족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7~35점이나, 실제로는 11~35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2~27점 사이가 54%로 가장 많았고, 31점 이상의 높은 점수에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의복의 동조성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3~65점이나, 실제로는 15~56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0%가 30~39점 사이에 속하였으며, 40점 이상의 높은 점수에서는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의복의 안락감과 중요성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7~35점이나, 실제의 점수범위는 안락감은 10~34점, 중요성은 10~35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락감은 22~27점 사이에 65%가 속하였고, 중요성은 19~24점 사이에 48%가 속하였다.

2. 지각향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知覺向性과 衣服의 滿足度와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모두에서 意味있는 正的 상관관계를 보여 <가설 1>은 부정되었으며, 이것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肯定的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衣服에 대해서 滿足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肯定的 또는 否定的의 知覺이 그대로 의복의 만족도에 반영된 것이고, 이경순¹⁷⁾ 및 임춘봉¹⁸⁾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自我概念과 衣服의 滿足度사이의 관계를 支持한다.

知覺向性과 衣服의 同調性과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고등학생의 자아지각과 의복의 동조성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意味있는 負的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설 2>는 部分的으로 부정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표 1> 지각향성과 의복의 만족도와의 관계

의복변인 학교	만족도(r)		
	중학교 (n=250)	고등학교 (n=230)	전체 (n=480)
지각향성			
타인지각	.45**	.26**	.36**
자아지각	.43**	.22**	.29**
총지각	.51**	.28**	.38**

** p<.01

肯定的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衣服의 個性을 중요시하며, 이것은 知覺向性이 낮은 女子 中: 高等學校 학생들이 의복의 동조성이 높았다는 김영인¹²⁾의 연구결과 및 自我知覺이 낮은 소녀들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복에 동조하였다는 Parrish²⁰⁾의 연구결과등을 支持한다. 이로써 知覺向性和 衣服의 同調性사이의 性別의 차이가 없으며, 남녀 모두 지각향성이 낮으면 의복의 동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지각향성과 의복의 동조성과의 관계

의복변인 학교	동조성(r)		
	중학교 (n=250)	고등학교 (n=230)	전체 (n=480)
지각향성			
타인지각	-.25**	-.16*	-.21**
자아지각	-.18*	-.08	-.09*
총지각	-.25**	-.14*	-.17**

* p<.05

** p<.01

知覺向性和 衣服의 安樂感 및 重要性과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지각향성과 의복의 안락감은 意味있는 正的 상계계가 있었고, 의복의 중요성과는 意味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肯定的으로 知覺하는 사람은 自信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복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지각향성과 의복의 안락감 및 중요성과의 관계

의복변인 학교	안락감(r)			중요성(r)		
	중학교 (n=250)	고등학교 (n=230)	전체 (n=480)	중학교 (n=250)	고등학교 (n=230)	전체 (n=480)
지각향성						
타인지각	.09	.15*	.11*	-.12	.00	-.06
자아지각	.20**	.04	.12*	.01	.05	.08
총지각	.18**	.11	.14**	-.06	.03	.02

* p<.05

** p<.01

〈표 4〉 지각향성 및 의복변인의 집단별 비교

변인	중 학교(n=250)		고 등 학교(n=230)		T-Value
	M.	S.D.	M.	S.D.	
지 각 : 타인지각	71.10	7.78	71.09	7.31	.01
자아지각	72.25	10.59	75.88	8.74	4.11**
총 지 각	143.39	15.67	146.97	13.52	2.69**
의 복 : 만 족 도	25.34	4.34	23.71	3.84	4.34**
동 조 성	32.59	6.67	35.51	6.13	4.98**
안 락 감	24.41	3.66	23.78	3.36	1.96
중 요 성	21.01	4.32	23.78	4.23	7.09**

** p<.01

3. 지각향성 및 의복변인의 집단별 비교

지각향성 및 의복행동에 대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비교는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部分的으로 意味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3〉은 부분적으로 否定되었다. 즉 자아지각과 총지각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았으며, 이것은 青年 後期가 前期보다 自我意識이 발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복의 満足度는 中學校가, 의복의 同調性 및 重要性은 高等學校가 높았다. 의복의 満足도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높은 것은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옷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옷에 불만이 많고, 의복의 同調性과 重要性이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은 이유는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社會的 活動이 활발하여지고, 異性을 더 의식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의복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의복의 동조성

의복의 동조성 각 측면간의 상호관계는 전부 意味있는 正的 상관계수가 있었고, 검증결과는 사회적 관계와 날씨를 제외하고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사이에 意味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으로 전반적으로 한 측면의 동조성이 높으면 다른 측면의 동조성이 높으나, 날씨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동조현상은 연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조성문항들의 頻度分布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조성이 높은 것은 基準 1문항, 가격 및 구매 1문항 뿐이었고, 그외에는 모두 동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복의 동조성이 思春期 青少年들에게 중요한 측면이며 高等學生에서 男子가 女子보다 의복의 同調性이 높다는 Hambleton, Roach 및 Ehle¹³⁾의 연구결과와는 반대이다.

이러한 相反되는 결과는 우리나라 中·高等學生들이 계속 校服에만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교복자율화를 앞두고 강요되었던 의복 즉 의복의 동조성에서 갑자기 해방된 결과에서 일어나는 過渡期的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5. 의복변인 상호간의 관계

의복변인간의 관계는 〈표 5〉와 같이 전부 意味있는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즉 의복의 만족도와 안락감, 동조성과 중요성은 正的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나머지는 逆的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자신의 의복에 満足하고 있는 사람은 의복의 편안함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집대상이 男學生이므로 活動하기에 便한 옷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의복의 동조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의복의 同調性이 높은 사람은 他人과의 調化를 重要視한다는 Taylor와 Compton¹⁰⁾의 연구결과를 支持한다.

〈표 5〉 의복변인 상호간의 관계 n=480

의복변인	동조성(r)	중요성(r)	만족도(r)
중요성	.33**		
만족도	-.44**	-.30**	
안락감	-.14**	-.31**	.21**

**p<.01

6. 의복구매 및 교복자율화에 대한 태도

의복을 구입할 때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安樂感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안락감이 成人 男子에게 의복의 중요한 선택기준이었던 이경손¹⁷⁾의 연구결과를 支持한다. 의복구입장소는 시

장이 가장 많았으며 이것은 표집대상이 成長期에 있는 男學生이었기 때문에 비싼 의복보다는 값이 싼 의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복자율화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찬성하였고, 찬성한 이유로는 활동이 편해서, 개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등이었으며, 高等學生이 중학생보다 個性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복자율화의 허용범위는 옷의 모양 및 색의 제한을 원하지 않았으나, 비싼 옷은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상당수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은 感受性이 예민하기 때문에 교복자율화로 인한 경제수준의 차이가 表面化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I. 結 論

첫째로, 知覺向性은 의복의 滿足度 및 安樂感과 正的 상관계가 있었고, 의복의 同調性과 負的 상관계가 있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肯定的으로 知覺하는 사람은 자신의 衣服에 만족하고 의복의 편안함과 個性을 중요시하였다.

둘째로, t검증 결과 衣服의 滿足度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높았고, 自我知覺, 總知覺, 衣服의 同調性 및 重要性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았다.

세째로, 衣服의 同調性에서 각 측면간의 상호관계는 모두 意味있는 正的 상관계가 있었고, 중·고등학교 사이에는 사회적 관계와 날씨를 제외한 모든 등조성의 측면에 有意的인 차이가 있어, 보편적으로 한 측면의 등조성이 높으면 다른 측면의 등조성도 높았다.

네째로, 의복변인의 상호관계에서 의복의 滿足度와 安樂感, 의복의 同調性과 重要性은 意味있는 正的 상관계가 있어, 의복의 안락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고 있었고, 의복의 등조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로, 衣服을 購入할 때는 安樂感을 중요시하였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구입장소는 市場이 가장 많았다. 또한 校服自律化는 대부분 찬성하였고,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이 편해서였으며, 비싼 옷의 제한을 원하였다.

이상의 結論을 기초로 다음의 두가지를 提言하고자 한다.

첫째로, 의복구매시 가장 중요시하는 측면은 安樂感이었고, 구매장소는 대부분 市場이었으므로 의류생산업자들은 학생들의 의류생산에 있어서 價格과 活動性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로, 교복자율화는 대다수가 찬성하므로 교복자율화실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교복자율화의 허용범위에서 옷의 모양이나 색은 대다수가 自律的인 것을 원하였으나, 비싼 옷의 제한은 상당수가 찬성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의 신분엔 맞지 않는 비싸고 사치스러운 옷을 制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옷의 모양이나 색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選擇할 수 있는 眼目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Hurlock, E.B.,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Tokyo: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McGraw-Hill Kogakusha Ltd., 168~169, (1973)
- 2) 나병술, 청년심리학, 형설출판사, 64, (1975)
- 3) Baugher, S.L. and Martin, B.B., "The Decision-Filled Years of Adolesce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73, 40, (1981)
- 4) Craig, M.T., Clothing: A Comprehensive Study, New York: J.B. Lippincott Co., 171, (1968)
- 5) Latzke, A. and Hostetter, H.P., The Wide World of Clothing,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21~24, (1968)
- 6) 최정훈, 지각심리학. 을유문화사, 69~80, (1979)
- 7)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79~181, (1966)
- 8) Anspach, K., Clothing Selection and the Mobility Concept." *Journal of Home Economics*, 53, 428~430, (1961)
- 9) 고영복, 현대사회심리학, 범문사, 140, (1981)
- 10) Taylor, L.C. and Newton, A., "Perceptions of Clothing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0, 653~656, (1968)
- 11) Horn, M.J.,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46, (1975)
- 12) 김영인,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13) Hambleton, K.B., Roach, M.E. and Ehle, K., "Teenage Appearance: Conformity, Preferences, and Self-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4, 29~33, (1972)

- 14)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Ams Press, 86, (1930)
- 15)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4~15, (1976)
- 16) Humphrey, C., Klaasen, M. and Creekmore, A.M.,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46~250, (1971)
- 17) 이경손,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18)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19) Creekmore, A.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99~100, (1966)
- 20) Parrish, P.C., "Self-Perception Relative to Selected Clothing Attitudes and Practices and Clothing Usage."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44, (1975)